



“백기태는 단순한 악역 아닌 매력 있는 입체적 인물”

“개인적으로 백기태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악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하지는 않았어요. 단순한 악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인물이었죠.”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현빈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본인이 연기한 백기태는 그저 악역이라고 만 볼 수는 없는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마약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현빈은 이번 작품을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악역을 맡게 됐다.

하지만 그는 “백기태가 정말 악역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당연히 백기태는 나쁜 놈이고 잘못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딘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백기태라는 인물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영화 ‘하얼빈’에 이어 우민호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춘 두 번째 작품이었다.

현빈은 우감독에 대해 “항상 (배우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이라며 “배우로서 그 지침이 참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떨 땐 고개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이야기 해주시는데, 실제로 모니터를 보면 고개를 들고 대사를 했을 때 프레임 안 공기가 완전히 뒤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 참 잘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가 시가(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롱테이

크로 담아낸 6화 엔딩은 현장에서 우감독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장면으로, 현빈의 ‘인생 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장면에 대해 현빈은 “저도 그날 오전에 스탠바이를 하던 중 갑자기 감독님으로부터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반응이 좋아) 뿌듯했다. 감독님 생각이 맞아들어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현빈이 연기한 백기태는 한국의 제임스 본드, 한국의 톰 하디 등 다양한 별명을 얻으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역시 백기태라는 캐릭터에 유독 애정을 쏟았다. 우감독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13~14kg을 증량하며 백기태라는 캐릭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기태가 속해있는 기관 자체의 힘, 위압감이 백기태에게서 뿐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실제 1화 비행기 안 상황에서는 ‘제임스 본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감독님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영화 ‘하얼빈’ 때는 감독님께서 근육을 다 없애달라는 주문을 하셔서 1년 넘게 운동을 쉬었었는데, 그러다 (이 작품을 위해) 다시 근육을 불이려니 처음엔 고통스러웠다”며 “수트가 완전히 몸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화면을 보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첫 악역, 첫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 등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됐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 작품을 통해) 나를 새로운 도전을 한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백기태라는 인물과 작품을 향한 좋은 반응들이 배우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자신 있게 또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빈은 원지안, 서은수, 조여정, 노재원 등 이번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여러 배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현빈은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이며, 올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는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이 작품은 반드시 한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도 어느 나라에서나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시청자들이) 작품을 보면 서 현 시대와 대입해 질문하고, 생각해볼 수 있으 면 좋겠어요.”

/연합뉴스



BTS ‘Save ME’ 뮤비
유튜브 조회 수 8억 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세이브 미’(Save M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8억건을 돌파 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2시 2분께 8억뷰를 넘겼다. ‘세이브 미’는 지난 2016년 5월 발매된 스 페셜 앨범 ‘화양연화 영 포에버(Young Forever)’ 수록곡이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8억뷰를 웃든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빅히트뮤직은 “발매 약 9년 9개월이 지난 앨범의 수록곡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영 향력과 팬들의 지지를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세이브 미’는 트로피컬 하우스와 퓨처 베이스 요소가 결합한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감성적인 목 소리와 청량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방탄소년단은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표하고 다음 날인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선보인다. 5집은 예약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선주문량 406만장을 돌파했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사전 저장(Pre-save) 4일 차에 200만회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사랑을 쳐방해…’ 14.3% 출발

철천지원수인 두 집안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사랑을 쳐방해 드립니다’가 14%대 시청률로 시 작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 날 방영된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쳐방 해 드립니다’ 첫화 시청률은 14.3%(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전작인 ‘화려한 날들’ 첫 방송 시청률은 13.9%였다.

첫 방송에서는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으르렁대는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의 깊은 갈등이 그려 졌다. 동네 할머니의 한약 환불 문제로 맞붙은 공명정대한 의원의 공정한(김승수 분)과 양지바른 한의원의 앙동의(김형목)은 서로를 ‘속풀고 위선자’라 몰아세우며 유치한 설전을 벌였다.

여기에서 공정한의 부친과 앙동의의 모친이 30년 전 함께 애반도주했다는 과거가 밝혀지며, 이들의 대를 이은 악연에 관심이 모아졌다.

공씨 집안 팔공주아(진세연)와 양씨 집안 아들 양현빈(박기웅)의 첫 만남도 담겼다. 이 작품은 드라마 ‘각시탈’ 이후 14년 만에 다시 만난 박기웅·진세연과 1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유후정 등이 출연하며 이목을 끌었다.

/연합뉴스

아시아 인디가수 음악경연 ‘아시아 뉴비트’ 한국대회 열린다

11일까지 참가자 모집…3월 21일 태국서 최종 결선

아시아 인디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경연 ‘아시아 뉴비트’에 나설 참가자를 가리는 한국 지역 대회가 다음 달 치러진다.

아시아 인디음악 플랫폼 뮤지는 다음 달 11일 까지 아시아 인디음악 경연대회 ‘2026 아시아 뉴비트’ 한국 지역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아시아

뉴비트’는 아시아 지역의 잠재력 있는 신인 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한국·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4개국에서 지역 대회가 열린다.

한국의 경우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예선을 치르며 이후 본선을 통해 아시아 결선 참가자를 최종 선발한다.

서울 예선은 다음 달 21일 마포구 스페이스브

릭에서 열리며, 부산 예선은 같은 달 23일 동서대학교 센텀 캠퍼스 소극장에서 치러진다.

한국 경연 본선은 오는 3월 4일 동서대학교 본교 소학당에서 진행된다.

본선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오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결선에 참여한다. 대회 결선은 음악축제 ‘고온 그라운드 뮤직 페스티벌’(Go On Ground Music Festival)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 상금은 1만달러

(한화 약 1430만원), 준우승 상금은 5000달러(약 710만원)다. 결선 참가자 중 일부에게는 음반 발매, 아시아 투어 기회도 주어진다.

대회 참가 자격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30세 이하 일반인이며 신청자는 자작 신곡 혹은 2025년 1월 이후 발표한 음악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뮤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뮤지는 글로벌 음악 기술 기업 스타네스트 그룹이 운영하는 인디음악 플랫폼이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